

‘슈퍼맨’: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아버지 상(像)

김영철 (金映鐵)*

양진희 (梁賑姬)**

논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아버지 상을 알아보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사회의 가족구조의 변화 속에서 아버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버지로서의 삶을 재조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하여 S, Gy, Gw 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8명과 심층면담 자료와 개방형 질문에 대한 263명의 답변 자료가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다. 그 결과,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아버지 상은 크게 8가지로 분류 되었으며, 이는 다시 2개의 요소가 짝을 지어 심층적인 통합의 관계를 가진 4가지로 범주화되었다. 그것은 첫째, 지지하는 아버지이자 지원하는 아버지, 둘째, 친구 같은 아버지이자 훈육적인 아버지, 셋째, 모범적인 아버지이자 존경받는 아버지, 그리고 넷째, 능력 있는 아버지이자 가정적인 아버지이다.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아버지와 현실 속에서 아버지로서의 자아상은 분리와 통합의 관계를 동시에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아버지 상은 현대사회, 가정, 그리고 아버지 자신으로부터 요구되는 바람직한 아버지 상과 상호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역동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에 의해 현대사회의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아버지 상과 실제 삶 속에서의 아버지로서의 자신의 모습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또한 이상적인 아버지 상과의 통합을 꿈꾸며 분리와 통합의 감정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었다.

주요어 : 유아기, 유아, 아버지, 아버지 상

* 충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한국교통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부교수

I. 서론

“당신은 자녀에게 ‘아버지’인가, ‘친구’인가, ‘통장’인가?”(EBS <파더쇼크> 제작팀, 2013). 이 한 줄의 질문은 현대를 사는 ‘우리사회 아버지들의 삶’의 변화된 양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친구’, 또는 ‘통장’이라는 단어와 병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국 전통사회에 존재했던 ‘아버지’를 연상할 때, 어떤 단어를 ‘아버지’라는 단어와 병치할 수 있는가? 적어도, ‘친구’, 또는 ‘통장’이라는 단어와 병치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누군가 우리에게 ‘아버지’는 곧 ‘친구’, 또는 ‘물주’라는 의미를 지닌 ‘통장’을 제시한다고 하여, 우리는 더 이상 크게 놀라지도, 또는 틀렸다면 정색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아버지’란 단어와 병치된 ‘친구’와 ‘통장’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회에서는 그 시대가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동시에, 가정에서는 아내와 자녀가 아버지에게 기대하는 역할, 즉 ‘아버지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시대적 배경이 반영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한 줄의 질문은 이 시대의 사회, 가정, 그리고 아버지 자신이 스스로, ‘친구 같은 아버지’, 그리고 ‘물질적 지원자로서의 아버지’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는 그러한 열망을 투영하고 있다.

아버지는 자녀의 삶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시작을 뒷받침하며 (Ringsmose, 2012), 자녀의 성장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의 성장 발달과 함께 역시 발달되고 변화되어야 한다 (Cabrera, Tamis-LeMonda, Bradley, Hofferth, & Lamb, 2000).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와 어머니에게도 중요하지만, 남성 개인적 삶 자체에서도 가족 내 역할과 존재를 확인하고 수행함으로써 정체감과 일상생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정한나, 2012). 가정 내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어머니는 대신 할 수 없으며 아버지만이 수행할 수 있는, 어머니와는 질적으로 다른 고유한 역할이 있다(Lamb, 2000). 반면, 어머니의 고유한 역할로 인식되어 온 양육자로서의 역할은 현대사회에서 아버지로 사는 남성들에게 요구되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가정 내에서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는 유아기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 및 자녀의 사회성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설경옥, 문혁준, 2006; 송요현, 현온강, 2008), 자녀의 인지발달을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Gadsden & Ray, 2002)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는 오늘날, 아버지 역할에 대한 관심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김진, 2005; 김영숙, 2008; 윤현경, 2010).

아내들은 남편에게 요구한다. 책임감을 갖고 양육에 나서라고. 아빠로서의 본분을 다하라고. 그러나 어느 누구도 진정한 부성(父性)을 가르쳐주지는 않는다. 엄마의 역할에 대해서는 과할 정도로 정보가 넘쳐나는데, 아빠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EBS <파더쇼크> 제작팀, 2013).

현대사회에서의 아버지들은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요구되는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일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이정순, 조희숙, 2005). 이는 오늘날 아버지들은 사회적으로는 ‘성공적인 직장인’, 가정적으로는 ‘자상한 남편’, 그리고 자녀에게는 ‘친구 같은 아버지’라는 복합적인 모습을 갖출 것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이숙현, 1995).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아버지 상과 일상적이고 경험적인 아버지 역할 간의 괴리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은 아버지들에게 가정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요구의 증가가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강한 요구와 심리적 압박감은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과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Ross & Huber, 1985).

반면, 아버지들은 자녀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자녀가 보이는 반응을 통해 양육의 보람과 기쁨을 경험하며, 아버지로서 자녀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 많을수록 아버지는 부모로서의 자신감과 만족감을 더 많이 얻게 된다(Rogers & White, 1998). 아버지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긍정적, 부정적 심리적 갈등은 아버지로서 자신의 능력에 대해 내리는 평가에 영향을 미치며(Greenberger & O’Neil, 1993), 이러한 평가는 다시 아버지로서 경험하게 되는 보상이나 즐거움 또는 만족감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Duxbury & Higgins, 1991) 상호 역동적이며 순환적인 원형을 이루게 된다. 이에 자녀의 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좋은 아버지’와, 아버지들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아버지 상’을 분석하는 일은 아버지로서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만족감 및 갈등을 파악하고, 아버지로서의 긍정적 경험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현대를 사는 이 시대의 아버지들, 특히 아버지로서 첫 걸음을 시작하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어떠한 아버지가 되고자 열망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좋은 아버지’ 또는 ‘바람직한 아버지’라고 응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좋은 아버지’나 ‘바람직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를 말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한 마디로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렵다. 좋은 아버지가 바람직한 아버지 상은 시대와 문화적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Pleck, 1997). 그 시대나 문화가 요구하는 아버지 상은 변화해오고 있으며(김영철, 2014; 김인홍, 1997; 김혜영, 황정미, 선보영, 김동기, 2008; 서명희, 2006; 조형숙 외, 2008), 그에 따라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변화하고 있다(강란혜, 2000; 공진수, 2006; 이영환, 1999; EBS <파더쇼크> 제작팀, 2013). 시대와 문화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아버지 상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변함없이 늘 중시되어 왔다. 그것은 자녀가 성장 과정에서 형성한 아버지 상은 개인의 자기상을 갖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 되며, 나아가 개인의 삶에 무의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김영희, 최명선, 2001), 어린 시절 자신이 경험한 아버지를 통해 아버지 상이 내면화되기 때문이다(Pleck, 1997). 이는 현재 아버지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아버지 상이 남성의 어릴 적 아버지로 부터 긍정적인 면에서든 또는 부정적인 면에서든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대와 문화의 경계를 뛰어 넘어 ‘좋은 아버지, 바람직한 아버지란?’ 사회, 가정, 그리고 아버지인 남성들에

게 끊임없이 던져진 질문이자 풀어야 할 과제이다.

키에르케고르의 『그리스도교의 훈련』과 『이것이냐 저것이냐』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아버지의 이상적 역할, 또는 이상적인 아버지 상(나일수, 1994)은 자녀의 성장발달에 따라 3단계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 1단계는 자녀가 유년기일 때이며, 이 시기는 '자녀를 엄격히 훈육하는 아버지'를, 2단계는 자녀가 아동기일 때이며, 이 시기는 '자녀에게 수범이 되는 아버지'를, 그리고 3단계인 자녀가 청소년기일 때는 '자녀에게 도덕에 대한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는 아버지'가 이상적인 아버지이다. 이상적인 아버지는 서구의 위대한 고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Zoja(2001)에 의하면, 『일리아드』에 나오는 트로이의 왕자 헥토르는 남성성과 가부장권을 상징하는 갑옷을 벗고 온유함으로 자녀에게 다가가는 아버지이자 공동체가 위협에 처했을 때는 홀로 나가 남성상의 상징인 아킬레우스와 싸우다 죽임을 당하면서도 자녀에게 책임감을 심어주었으며,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텔레마코스의 아버지 오디세우스는 아들에게 인내와 계획, 그리고 겸손, 심지어는 굴욕까지도 온몸으로 가르친다. 한편 Henry(1997)는 Andrew Samuels(1985, 1989, 1993)가 제시한 '아버지와 자녀 간의 신체적, 심리적 거리의 두 차원'에 준거하여 '충분히 좋은 아버지'는 자녀와 가깝기도 하되 지나치게 가깝지 않은, 강하지만 자녀를 압도하지 않는, 사랑하지만 자녀를 유혹하지는 않는, 조력적이면서도 자녀에게 훈육적이기도 한, 돌보면서도 자녀의 자율성을 격려하는 아버지로 정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좋은 아버지', 그리고 '바람직한 아버지'와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권오진(2009)의 연구에서 좋은 아버지는 '잘 놀아주는 아버지'이다. 또 다른 연구(이숙현, 1995)에서 좋은 아버지는 '자녀에 대해 아는 것이 많은 아버지', '자녀의 말에 귀 기울여 경청하는 아버지', 그리고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버지'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아버지들은 아버지로서 어떤 아버지가 바람직한 아버지라고 생각하는가? 한 연구(조형숙, 김지혜, 김태인, 2008)에 의하면,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아버지 상은 '다정다감한 아버지', '안내자로서의 아버지', '본보기가 되는 아버지', '민주적인 아버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유능한 아버지'이다. 권영임(2012)의 연구에서 제시한 바람직한 아버지 상은 '자상한 아버지', '멘토 같은 아버지', '친구 같은 아버지', '대화를 많이 하는 아버지', '본보기가 되는 아버지', 그리고 '경제적 안정감을 주는 아버지'이다. 이상의 연구들은 연구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도출된 '바람직한 아버지 상'이 위대한 고전이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또 다른 많은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되지도, 그렇다고 새로운 아버지 상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것은 각 연구에서 도출된 '바람직한 아버지 상'들이 병렬식으로 나열되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병렬식으로 나열된 결과물들은 많은 양의 '아버지 상'을 양산해 낼 수는 있으나, 도출된 각 '상'들이 어떤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상'들이 다른 '상'들과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할 수 없다. 이에

선행연구에서는 밝혀내지 못한 새로운 특성들을 찾아내고,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아버지 상을 도출하고, 이들 각 '상'들 간의 관계, 그리고 각 '상'들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S, Gy, 그리고 Gw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원 중인 3, 4, 5세 유아의 아버지 263명이며,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의 연령은 35세에서 40세 미만이 약 45%, 40세 이상은 약 35%, 그리고 34세 미만이 약 20%에 해당되었다. 263명의 아버지 중 8명은 심층면담에 참여하였다. 심층면담 대상은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교육기관의 원장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 면담 일정, 면담 장소, 면담 소요시간 등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본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동의한 아버지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아버지의 연령 및 자녀의 연령과 관련된 일반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		구분		빈도	
개방형 설문대상 아버지	34세 미만	54(20.53)		자녀의 연령	3세	93(35.36)	
	35-40세 미만	118(44.87)			4세	76(28.90)	
	40세 이상	91(34.60)			5세	94(35.74)	
	전체	263(100.0)			전체	263(100.0)	
심층면담 참여 아버지	ID	연령	학력	직업	자녀		
	A	38	4년제 대학 졸업	회사원	5세 여아/ 7세 남아		
	B	42	2년제 대학 졸업	자영업	5세 남아/ 7세 남아		
	C	33	2년제 대학 졸업	농업	5세 여아/ 3세 여아		
	D	38	4년제 대학 졸업	회사원	5세 남아		
	E	40	4년제 대학 졸업	교사	5세 여아/ 2세 남아		
	F	39	2년제 대학 졸업	자영업	5세 남아/ 9세 여아		
	G	42	2년제 대학 졸업	공무원	5세 여아/ 8세 여아		
	H	38	대학원 졸업	교사	5세 여아/ 7세 남아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를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로 선정한 것은 이 시기의 아버지들이 아버지로서 지내는 다른 어떤 시기보다 자녀를 처음으로 맞이함으로써, 아버지로서 내 자녀에게 어떤 아버지 상을 심어줄 지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하는 시기(조형숙 외, 2008)라는 점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가정의 경제수준 및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263명이 응답한 자유응답 설문문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아버지들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아버지 상, 이상적인 아버지 상은 아버지의 경제수준 및 교육수준에 따라 차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산층 이상 가정의 아버지를 선정함으로써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높은 아버지가 교육수준이 낮고 소득 수준이 낮은 아버지에 비해 높은 양육참여도를 나타내며(조형숙 외, 2008; 이영미, 민하영, 2006), 양육을 통해 자녀와 접할 기회가 많은 아버지가 그렇지 않은 아버지보다 아버지로서 역할과 아버지로서 자신의 위치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여 이를 인식할 기회가 더 많을 것이라 예상하여 연구에 보다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답변을 해줄 것이라고 판단 한 연구(조형숙 외, 2008)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아버지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아버지 상에 대한 생각은 아버지의 학력 및 경제수준 등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깊이 있고 의미 있게 답할 것이라고 판단한 전문가(유아교육학과 교수 2인, 교육학과 교수 1인)의 의견도 수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개방형 설문지에는 ‘생명윤리법 제3조’ 취약한 대상자 특별보호(설문에 응답하는 연구대상자로 하여금 스트레스, 불편함 및 그 밖의 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는지 등)의 관점에서 기관생명윤리위원 2인의 검토를 거쳐 연구 대상자의 배경변인에 대한 문항을 조정하였다.

2. 연구 절차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 기술로서 심층면담과 자유응답 설문문의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은 바람직한 아버지 상에 대한 맥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자유응답 설문은 그에 대한 일반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시 말하여 자유응답 설문은 바람직한 아버지 상 전체를 포괄하기 위하여, 그리고 심층면담은 바람직한 아버지 상의 심층적 의미를 드러내는데 유용하다는 것이다. 이 두 자료 수집방법은 동시에 시작되었으나, 심층면담 자료 수집기간을 길게 잡아 수집된 자료를 보완할 수 있게 하였다. 두 자료수집 방법별로 연구절차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심층면담은 2014년 2월 10일부터 5월 3일까지 약 12주 동안 진행되었으며, 연구 참여자가 아버지로서 삶을 통해서 추구하는 아버지 상은 무엇이며, 아버지로서 변화된 가치관, 태도, 행동, 노력 등을 포함하여 개인 신상과 가족 및 사회생활, 자녀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순환 심층면담 기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심층면담 질문 내용은 반구조화된 형식으로

구성되었으며, 면담은 면담 과정에서 대화의 맥락에 따라 질문 내용이나 순서를 조정하면서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 면담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즉시 전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내용이나 해석과정에서 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이 요구되는 내용들은 다음 면담 질문에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심층면담에서 수집된 자료는 모두 개별면담 자료로 연구 참여자가 각각 1회씩 참여한 8회의 정기면담과, 이후 추가적인 면담이 요구되는 연구 참여자(아버지 B, 아버지 C, 아버지 G, 아버지 H)에게만 별도로 이루어진 각 1회의 수시면담이 포함된 총 12회의 면담자료이다. 1회 면담에 소요되는 시간은 수시면담이 이루어진 최소 34분에서 정기면담이 이루어진 최고 118분까지 분포되었으며, 12회 평균 면담시간은 약 54분이었다. 본 연구자들은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를 구한 후 모든 면담 내용을 디지털 녹음기에 녹음한 결과 총 648분간의 녹음자료가 수집되었다. 녹음된 자료는 면담 후 즉시 전사되어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다.

둘째, 설문지는 2014년 2월 10일부터 21일까지 3, 4, 5세 자녀를 둔 아버지 300명에게 배부하였다. 그 결과 265부가 회수되었으며, 기록이 누락된 설문지는 2편을 제외하고 최종 263부가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다. 설문지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가장 강력하게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인지’, ‘자녀에게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은지’,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인지’ 등을 묻는 내용으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기록하도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에 대한 사례분석방법은 Morman과 Floyd(2006)가 사용한 분석방법을 참고하였다. 수집된 263부의 설문지는 내용분석방법을 통해 사례들을 분석하고 범주화한 후, 각 범주를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추출해 내는 방식으로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들은 Strauss와 Corbin(1990)이 제시한 개방 코딩(open coding) 방식에 근거하여 분석되었다. 즉, 연구자들은 심층면담을 통해 전시된 자료와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개방형 기술 자료를 모두 통합한 후 모든 자료를 계속 반복하여 읽어가면서 아버지들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아버지 상에 대한 각각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비슷한 개념끼리 묶어 하위 범주를 구성하여 이들을 대표할 수 있는 상위범주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몇 단계를 거쳐 모든 사례를 범주화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된 사례들을 반복적으로 정독하면서 의미 있는 내용들을 추출한 후 비슷한 개념끼리 유목화하고, 이를 대표 주제에 따라 공통 주제를 묶는 영역 분석을 하였으며, 둘째, 영역 분석 자료를 영역별로 부호화하여 각각의 하위

유목들을 포괄하는 상위 제목을 찾고 이들 각각을 분류 체계에 따라 상위특성으로 범주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은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어떤 아버지가 바람직한 아버지라고 생각하는지, 자신들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아버지 상으로 약 183개(아이를 격려해주는 아버지, 아이에게 용돈을 잘 주는 아버지,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버지,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아버지, 아이들에게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지원하는 아버지 등등)를 제시하였다. 둘째, 도출된 내용들은 연구자들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정독하고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좀 더 큰 유목을 정한 뒤, 그 안에서 공통적이거나 특정한 개념, 또는 유형별 내용을 세분화 및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약 55개의 아버지 상으로 유목화하였다. 셋째, 유목화된 내용들은 이를 포괄하는 중간주제를 찾아 상호 관련성이 높은 특성들로 다시 분류되어 8개의 주제로 범주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의 매 단계마다 연구자들이 신중한 협의와 논의 과정을 통해 분석 및 해석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함으로써 연구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유아교육전문가 2인과 연구의 참여자 2인으로부터 자료의 분석 및 해석에 대해 검토 및 확인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아버지 상을 최종적으로 4개의 대주제(지지하는 아버지이자 지원하는 아버지, 친구 같은 아버지이자 훈육적인 아버지, 모범적인 아버지이자 존경받는 아버지, 능력 있는 아버지이자 가정적인 아버지)로 범주화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해석

아버지로서의 삶과 경험을 통해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아버지 상이 무엇인지 분석한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아버지로서 사회와 가정, 그리고 아버지로서 자기 자신의 요구에 충족될 수 있는 아버지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나타난 특성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지하는 아버지이자 지원하는 아버지

지지하는 아버지 상은 자녀에게 자상하고, 자녀를 인정해 주며, 자녀를 자주 격려하고, 자녀의 편이 되어주며, 자녀의 고민을 잘 들어주고,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며, 자녀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자녀에게 허용적인 아버지 등 8개의 이미지를, 지원하는 아버지 상은 자녀에게 용돈을 잘 주고, 자녀에게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자녀에게 많은 경험을 제공하고, 자녀에게 선물을 자주하며, 자녀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자녀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아버지

등 6개의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다.

키다리 아저씨 같은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아이를 먼발치에서 바라보고, 아이가 하는 일을 마음으로 밀어 주고, 아이를 믿고…… 아이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면서…… 그리고 또…… 음…… 아이가 성취한 것에 크게 박수쳐주며 아이를 인정해주는 그런 아빠요. 음……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용기를 심어주고 또 격려해주는…… 말하자면, 항상 아이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2월10일, H 아버지)

아버지들은 아이에게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이들의 성취에 대해 격려하며,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아버지가 되고자 한다. 그러나 위 사례처럼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키다리 아저씨 같은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이러한 열망은 심리적 지지에 멈추지 않고, 자녀에게 물질적 지원까지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들이 아이의 꿈이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후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하며(조형숙 외, 2008), 부모가 아이가 원하는 꿈을 인정하고 복돋아 주게 되면 아이의 성취동기가 자극되어 아이들은 더욱 그 꿈에 매진하게 된다(권재희, 2006)는 점에 동의하나, ‘키다리 아저씨 같은 아버지’의 의미는 심리적으로 지지하는 아버지의 차원을 뛰어 넘어 물질적으로 풍부한 지원이 수반됨으로써 충족될 수 있는 아버지 상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아버지(#66 아버지),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바다 같은 아버지(#19 아버지),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뒷받침 해주며,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는 아버지(#2, #14 아버지), 심적, 물질적으로 모든 걸 다 해주는 아버지(#33 응답자),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풍족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아버지(#19, #68, #86, #109, #237외 32인의 아버지)가 제가 되고 싶은 아버지입니다. (설문응답내용)

또 부자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개콘에서 부자아빠를 풍자한 프로들 아시죠! 그런 아버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아빠가 주로 자식들에게 버릇처럼 하는 말요. ‘그래! 그거 얼마야! 하나 사버려!’ 그 하나가 초고충빌딩 한 채입니다. 하하하하하…… 백번 말로만 ‘그래, 힘을 내!, 넌 할 수 있어!’라고 립 서비스만 하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중략-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모두 지지해주고, 용기를 주면서 ‘까짓것 한번 해봐! 돈 걱정은 마, 이 아빠가 딱딱 밀어줄게 얼마야?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말만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돈도 딱딱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네요. 하하하하하…… (4월18일, H 아버지)

‘키다리 아저씨 같은 아버지’와 ‘부자 아빠’는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누구나 꿈꾸는 소망이었다. 이는 아버지들이 ‘경제적인 부(富)를 이룬 아버지’가 되어 풍요로운 경제적 능력을 갖추어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해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는 연구(조형숙 외, 2006)와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아버지 상은 단순히 ‘경제적 능력을 갖춘 아버지’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본 연구의 분석한 결과,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적극적 지지를 아끼지 않으면서 동시에 재정적인 풍부한 지원을 행위로서 실천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바로 현대사회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아버지 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아버지들의 열망은 이상적 아버지와 현실 세계에서의 아버지가 만나는 접점에서 충돌을 일으킨다. 이러한 접점에서 ‘지지하는 아버지’와 ‘지원하는 아버지’가 상보적인 관계를 형성할 때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아버지 상을 이루는 반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보일 때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라는 새로운 기류가 형성된다.

말로만 ‘그래, 해봐!’ 라고 말한 들, 한 두 번이지…… 아이들에게 부도수표만 만발하면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 둘 다 가진 아버지…… 맞아요. 말로도 밀어주고, 돈으로도 팍팍 밀어주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최고겠죠. 저도 그런 두 떡을 다 쥌 아버지…… 심적으로는 팍팍 밀어주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물질적으로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 못할 때, 망설이고 또 망설이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무력감을 느끼고, 초라하게 느껴지고…… (4월18, H 아버지)

위 사례와 같이 아버지들은 ‘심리적으로 지지하는 아버지이자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아버지’가 되고자 열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두 모습이 평형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때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지지하는 아버지’와 ‘지원하는 아버지’는 아버지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아버지 상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존립할 수 있으나, 각각이 분리되어 작동될 때, 아버지들은 상대적 빈약함을 경험한다. 아버지들은 ‘지지하는 아버지’만이 충족되었을 때는 ‘지원하는 아버지’를, 반대로 물질적인 풍부함을 제공하는 ‘지원하는 아버지’만이 충족되었을 때는 ‘지지하는 아버지’를 갈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아버지들은 자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심리적 지지자임과 동시에 자녀에게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지원하는 물질적 지원자로서의 능력을 모두 갖춘, ‘지지하는 아버지이자 지원하는 아버지’에 대한 열망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쟁사회에서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무엇을 다 해줄 수 있는 있겠습니까만 돈이 없어 지원하지 못한다면, 아버지로서 참 힘없는 불쌍한 아버지라고 자책할 것 같습니다. 글썄요. 교사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평생 원하는 만큼 지원해 줄 수는 없을 거라는 걸 다 알지요…… 그렇지만…… 노력해야겠지요! 로또를 사야하나? 허허허허…… 그래서 좀 씩씩합니다. 못 이룰 꿈…… 이루고 싶은 꿈이겠지요. 이 세상의 아버지라면 누구나 지지도 해주고, 물질적으

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버지가 되려고 늘…… 열심히…… 노력할 것 같아요. 아버지라면 누구나…… 네…… 둘 다 잘하고, 둘 다 갖추어야 능력 있는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2월10일, H 아버지)

또한 연구과정에서 밝혀진 또 하나의 특징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지지하는 아버지’는 아버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으나, ‘지원하는 아버지’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도달할 수 없는 그 어떤 한계점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남성이 자녀가 생김으로써 아버지로서 자신의 삶의 방향이 경제적으로 변하는 것에 대해 아버지들은 불행함을 느끼지 않으며, 자녀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제약이 되는 상황에서도 그러한 상황을 적극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황정해, 백경임, 2004)와 맥을 같이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아버지의 경제적 능력이 자녀에게는 교육의 기회를 높여주고, 자녀들의 교육성취 및 사회에 대한 적응력과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주며(Marks & Palkovitz, 2004), 더불어 아버지에게는 지지하는 아버지로서의 역할 수행에 강력한 힘을 실어줌으로써 아버지의 자존감과 아버지로서의 위상을 높여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2. 친구 같은 아버지이자 훈육적인 아버지

친구 같은 아버지 상은 자녀에게 솔직하고, 자녀와 잘 놀아주며, 자녀와 장난을 잘 치고, 자녀와 많은 시간을 공유하며, 자녀에게 거리감 없이 대하고, 자녀와 공감대가 있으며, 자녀와 대화가 잘 통하는 아버지 등 7개의 이미지를, 훈육적인 아버지 상은 자녀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며,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조언자가 되어주며, 자녀에게 일관성 있고, 매사에 리더십이 있으며, 자녀와 눈높이를 맞추고, 자녀의 자립심을 길러주는 아버지 등 8개의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다.

아들이 하나잖습니까. 아버지하면, 나의 아버지가 떠오르죠…… 애뜻함, 온유함, 강인함, 그러면서도 잘 어울려 놀아주는 아빠, 울 아버지가 그러했듯이 울 아들에게도 잘 어울려 놀아주는 아빠…… 형 같은 아빠, 서로의 생활을 속속들이 잘 이해하는 그런 사이, 무엇보다 아이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 아이와 거리감이 없는 그런 아버지…… 그래서 잘 통하는 그런 친구 이면서도…… 형 같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선배 같은 아빠처럼 울 아들이 저를 생각하도록 그렇게 생활해야겠지요. 평상시에 말입니다. - 중략 - 제 아들이 30살, 50살이 되어도 잘 놀아주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그 나이에 울 아들과 놀아 주려면 무지 노력해야겠죠! 힘없는 아빠가 되면 못 놀아 줄 테니까 말이에요. 하하하하 (3월14일, D 아버지)

거리감과 격이 없는 친구처럼 편안한 아빠(#23, #29, #36, #52, #59 외 25인의 아버지), 말이 통하고 친구 같은 아버지(#47, #57 외 13인의 아버지), 선배처럼 다정하고 가깝고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아버지(#186, #261 아버지), 허물없이 대화하고 친구 같은 아버지(#9, #11, #75 외 8인의 아버지), 아이가 즐기는 것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아버지(#181 아버지), 친구처럼 지내는 장난기 많은 그런 아빠(#32 아버지)가 제가 되고 싶은 아버지입니다. (설문응답내용)

아버지들은 자녀와 가능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친구처럼, 형제처럼, 그리고 때로는 선배처럼 자녀와 소통이 잘 되는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의 아버지는 다정한 아버지, 친구 같은 아버지를 요구하며(한경혜, 1995), 아버지들 또한 다정다감한 아버지, 친구 같은 아버지를 바람직한 아버지 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연구(권영임, 2012; 권오진, 2009; 김낙홍, 2010; 조형숙 외, 2012)결과와 일치하나, 위의 사례처럼 ‘놀이 친구로서의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열망은 단순한 놀이 친구로서의 의미를 가지지 않고 ‘형’ 또는 ‘선배’의 의미를 지닌 친구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아버지들이 형과 선배처럼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눈높이를 맞추는 아버지가 되고자 한다는 점에서 아버지들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아버지는 단순한 놀이 친구 차원을 넘어 안내자로서의 아버지를 함축한다.

학창시절에 친숙하게 불렀던 단어가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였는데…… 아버지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하는 뭔가 강한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략- 아빠와 아버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은 아마 늘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베스트 프렌드 아빠이면서, 아이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드러울 때는 격이 없는 아버지, 그러면서도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은 가르치고 옳지 않은 것은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온유하고 다정다감한 훈장님 같은 아버지가 바람직한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특성은 어느 한 쪽이 빠지면 뼈격거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 같기만 하면 한심한 아들을, 훈장님 같기만 하면 아버지를 무서워하며 거리감 있고 소통이 잘 되지 않으니 둘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월22일, A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가 아닌 엄한 아버지의 모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즘 세상이 이기주의가 자연스러워 보이거나 당연해 보이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56 아버지). 그래서 엄하면서도 친구 같은 편안한 아버지(#13, #39, #46외 35인의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설문응답내용)

물질이나 돈을 무조건 공급하기보다는 자립심을 길러 주고…… 또 무조건 버릇없어도 놀아주고 친구처럼 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주 친한 친구 같으면서 서로 잘못된 것은 바로 알고, 배울 것을 서로에게 배우는…… 절대 강압적이지도, 엄격하지도, 또 권위적이지 않으면서…… 민주적이고 다정한 친구처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잘 못된 것은 바르게 잡아주고, 조언해주는 친구…… 친구 같은 좋은 선생님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항상 학생들을 바른길로 인도해 주기 위한 나침반이 되고, 그리고 또 못된 친구를 사귀면 못된 아이가 되고, 좋은 친구를 사귀면 좋은 아이

가 된다고…… 바른 친구는 엄한 아버지보다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친구처럼 다정다감하고, 그러면서도 친구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고 조언해주는 친구…… 한결같은 친구, 변하지 않는 우정처럼…… (4월25일, F 아버지)

본 연구에서 아버지들은 자녀가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 올바르게 지도하는 훈육적인 아버지임과 동시에 자녀와 서로의 생활을 이해하고 많은 것들을 공유하는 친구 같은 아버지의 상을 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적인 아버지상으로 자상한 아버지에 한국의 전통적 가부장적인 권위를 가진 아버지상이 혼합된 아버지를 언급한 연구(권영임, 2012)와 부모가 온정적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지원하지만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요구와 통제를 행하는 양육을 이상적이라고 언급한 연구(Baumrind, 1971)와 다소 일치하나, 본 연구의 아버지들이 언급한 훈육의 의미는 ‘권위’, ‘강함’, ‘엄격함’의 의미보다는, 민주적이며 온유하고 다정다감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또한 본 연구의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과거의 아버지들에게서의 권위와 위엄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다정함’, ‘온유함’, ‘애뜻함’으로 자녀에게 그 위엄과 권위를 대신할 만큼 강하게 자신들의 생각을 주지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것은 모든 것을 터놓고 소통하고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관계의 형성으로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들이 친구 같은 아버지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자녀들과 너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보니, 권위나 위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히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다보면 아이들이 너무 버릇이 없어지고 더 자랐을 경우 아버지를 무시할 것 같기도 하고 훈육하기 어려울 것을 걱정한다고 밝히 연구(권영임, 2012)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나, 친구 같은 가까움과 동시에 가르칠 것은 가르칠 수 있는 ‘훈장님’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아버지라는 사실을 함축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자녀와 따뜻한 정과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좋은 아버지의 조건이며(Cowan & Cowan, 2000), 이러한 어릴 적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자녀가 성장하였을 때 무의식적으로 내면화되어 반영될 것이라고(김영희, 최명선, 2001; Pleck, 1997) 인식하고 있었다.

3. 모범적인 아버지이자 존경받는 아버지

모범적인 아버지 상은 성실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정직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약속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참을성 있고, 근검절약하며, 공중도덕을 잘 지키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남을 도와주고 배려하며, 인정이 많은 아버지 등 13개의 이미지를, 존경받는 아버지 상은 책임감이 강하고, 예의 바르며,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덕망 높은 아버지 등 4개의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다.

아들과 딸에게 삶의 표본이 될 수 있는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인정 많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친절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노력하는 부지런한 아버지로 인식되고 싶습니다. -중략- 사회에 봉사하는 삶의 모습도 자주 보여주고 싶고, 그러면서도 헌신적인 아버지…… 그런 아버지는 삶의 본보기가 되겠지요. (4월7일, E 아버지)

아버지들은 자녀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이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실천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아버지들은 자녀에 대한 기대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는 자신이 자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연구(권경임, 2012; 조형숙 외, 2008; 황정해, 백경임, 2004)와 맥을 같이 한다.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모범이 되는 아버지(#22, #24, #42외 17인의 아버지), 아이들이 성장 후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고(#115, #201 아버지), 아이들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는 표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존경 받을 수 있는 아버지(#24외 15인의 아버지), 그리고 무엇보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아버지의 모습, 그런 덕망 높은 존경받는 아버지(#127외 13인의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설문응답내용)

자녀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아이들이 저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본보기가 되는…… 모범적인 아버지가 되려는 것은…… 아이들이 아버지를 평가할 때…… 존경이란 말을 가장 먼저 떠올렸으면 하는 바램 때문입니다. 존경받으려면 아이들에게 솔선수범하는 모습, 실천하는 모습을 생활 속에서 보여주고……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도 의식적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모범적인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아버지들은 그냥 좋은 모델만 되고자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백프로 존경받는 아버지를 의식하는 건 아닐까…… 하하하하 제 경우에는 아무튼 모범적인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존경받기 위해서입니다. (3월8일, B 아버지)

본 연구에서 아버지들은 모범적인 아버지이자 동시에 존경받는 아버지 상을 추구하고 있었으며, 이를 바람직한 아버지 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모범적인 아버지이자 존경받는 아버지 상에는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모범적인 아버지임과 동시에 자녀로부터 모범적인 아버지로 지각됨으로써 존경받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 내포되어 있었다. 아버지들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아버지 상은 모범적인 아버지만으로도, 또는 존경받는 아버지만으로도 충족될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아버지들이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좋은 본보기가 되는 아버지가 되고자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이러한 모범적인 아버지 상은 바로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기 위한 충분조건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요구되는 필요조건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4. 능력 있는 아버지이자 가정적인 아버지

능력 있는 아버지 상은 지적, 재정적, 그리고 직업적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능력을 인정받는 아버지 등 3개의 이미지를, 가정적인 아버지 상은 집안일을 함께하고,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며, 가족의 결속력을 다지고, 가족과의 외출을 즐겨하며, 가족을 잘 돌보고,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가족에게 애정표현을 많이 하는 아버지 등 7개의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가정적인 능력뿐 아니라 자녀로부터 인정받는 아버지가 되고 싶은 열망이 내재되어 있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회사 업무에 너무 바쁘고 지치셔서 가족여행이나 가족의 애로사항을 얘기 나눌 시간도 없었고…… 그럴 여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지 어릴 적부터 저는 커서 어른이 되어 결혼을 하고 아빠가 된다면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족과 외출하고, 여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가족을 위해 요리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이면서 재미있게 해주는 가정적인 아버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중략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내려면…… 우리 아버지 세대는 가정에 충실 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것…… 승진도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 세대의 아버지들은 억눌러 놓치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건 지금 우리가 아버지인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밖에서 유능한 사회인으로, 능력을 인정받기를 강렬히 원하면서도……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는 그렇게 용인되었던 시대와는 다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지금이 훨씬 더 아버지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과업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일도, 그리고 가정도 모두 중요합니다. 두 곳에서 능력을 인정받는다면 더 좋겠지요. 그래야 완벽한 바람직한 아버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밖에서도 능력을 인정받고, 가정에서도 그 파스함과 아버지로서 인정받는 그런 아버지가 최고의 아버지가 아닐까요? 하하하하…… 그게 제가 바라는 바람직한 아버지입니다. (3월17일, C 아버지)

본 연구에서 아버지들은 사회적으로 능력을 인정받는 아버지이자 동시에 가정적인 아버지를 추구하고 있었다. 능력 있는 아버지이자 가정적인 아버지 상에는 자녀에게 아버지가 사회적으로 지적, 재정적, 직업적 측면에서 능력을 높이 인정받는 아버지임과 동시에 가족과 함께 많은 것을 공유하는 가정적인 아버지로 자녀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들은 자신을 알아보고 인정해주는 자녀를 통해 기쁨을 느끼며(김영두, 2011; 김혜선, 2005), 자신의 존재와 행위를 인정받고 또한 존중받으며 이를 계속 이어가고자하는 강한 열망을 지니고 있다는 연구(전경우, 2013)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을 지니고 있으며, 이 두 욕망이 충돌을 일으킬 때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현대의 아버지들은 사회적으로는 ‘일’과 개인적으로는 ‘가정’이란 두 마리 토끼를 양손 위에 쥐고 어느 한 쪽도 소홀히 하고 놓칠 수 없는 초인간적 능력을 요구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평일에는 회사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아버지(#62와 28인의 아버지), 직장에서는 능력을 인정받고 가족에게는 최고의 아버지, 능력 있으면서 가정적인 그런 아버지(#73와 19인의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설문응답내용)

우리 딸들이 사회적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또한 가정적으로 충실한 남자와 결혼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딸들은 아버지를 보고 남편감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우리 딸들도 남자를 선택할 때 아빠가 기준점이 된다는데 - 중략- 사회에서 능력 있는 아버지, 주말에는 가능한 아이들과 아내에게 가정적인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하하…… 물론 역부족이지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중략- 직장일도 잘하고,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가사일도 돌보고,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아이들도 양육하고, 한마디로…… 슈퍼맨이 되어야 좋은 아빠가 될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하하하하. 저도 이 시대에 직장에서, 가정에서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능력을 인정받는…… 슈퍼맨 아빠가 되고 싶네요. (4월28일, G 아버지)

본 연구의 아버지들은 사회적으로나 가정에서나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으며 유능한 사회인으로써, 동시에 가정적인 아버지로서의 삶을 추구하고 있었다. 아버지들은 직장에서의 많은 업무량으로 인하여 갈수록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늦은 귀가로 자녀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없는 사회적 여건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들이 역할 수행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중의 하나로 지적한 연구(권영임, 2012; 전연우, 조희숙, 2013; 조형숙 외, 2008; 홍길희, 황정해, 2008)와 맥을 같이 한다. 현실적으로 아버지들은 자신들에 대해 아직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지 못한 아버지라고 지각하고 있었으나(전연우, 조희숙,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아버지들은 사회적 위치는 삶의 전반적인 질뿐만 아니라(오현복, 2010), 가정에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인정받는데 있어 결정적 영향을 행사하는 중요한 변수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아버지 상을 분석하고, 이들 각 '상'들 간의 관계, 그리고 각 '상'들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아버지 상은 '지지하는 아버지', '지원하는 아버지', '훈육하는 아버지', '친구 같은 아버지', '모범적인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 '능력 있는 아버지', '가정적인 아버지'의 8가지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각 유형은 김혜선(2005)의 연구에서와 같이 절대적인 방향으로 특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대와 이미지를 추구하

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복합적인 기대와 이미지는 무질서하게 공존하는 현상을 나타내기 보다는 각 ‘상’들이 상호 상보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특정 ‘상’과 두드러지게 쌍을 이루는 특징을 나타냈다. 이러한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는 특성을 가진 상은 ‘지지하는 아버지이자 지원하는 아버지’, ‘친구 같은 아버지이자 훈육하는 아버지’, ‘모범적인 아버지이자 존경받는 아버지’, ‘능력 있는 아버지이자 가정적인 아버지’의 4가지 상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이 추구하는 아버지 상에 대해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들은 ‘지지하는 아버지이자 지원하는 아버지’가 되고자 열망하고 있었다. 먼저 ‘지지하는 아버지’는 아버지가 자녀가 원하는 꿈을 인정하고 복돋아 주면 아이의 성취동기가 자극되어 더욱 그 꿈에 매진하게 되며(권재희, 2006), 아버지들은 성취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녀가 꿈이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연구(조형숙 외, 2008)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현대의 아버지들이 자녀의 말에 귀 기울여 경청하며(이숙현, 1995; Rold & Canfield, 1994), 자녀에게 다정다감하고 자상한 아버지가 되고자 할 뿐만 아니라(권영임, 2012; 조형숙 외, 2008; 한경혜, 1995), 아동들도 애정적이고 온정적인 아버지를 원하고 있으며(정순화, 김시혜, 1996; 정은희, 1998), 그리고 사회 또한 자녀에게 반영적 경청자로서의 아버지(Canfield, 1995)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지지하는 아버지’이자 동시에 ‘지원하는 아버지’가 되고자 열망하고 있었으며, 또한 노력하고 있었다. 아버지들은 ‘지지하는 아버지’와 ‘지원하는 아버지’ 상이 평형을 이루지 못한다고 느낄 때, 아버지로써 자신의 능력에 대해 무력감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 두 ‘상’이 최대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의 능력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지하는 아버지’와 ‘지원하는 아버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아버지들은 갈등과 이 두 ‘상’ 사이에서 충돌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들은 자신이 아버지로써 가족 내에서 원하는 만큼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부모로서의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으며(서혜영, 1998), 비록 경제빈곤의 상황은 아닐지라도 가족에 대해 물질적으로 원하는 만큼 충분히 뒷받침을 해주지 못했을 때 아버지들은 자신을 가족이 원하는 만큼 다 해주지 못하는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현실에 대해 자책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전연우, 조희숙, 2013)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 발달에는 아버지의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적 지원도 중요하다는 주장(전연우, 조희숙, 2013; Snarey, 1993)과 어느 정도 일치한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아버지들은 일차적으로 자녀에게 심리적 지지를 하는 ‘지지하는 아버지’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이어 자녀에게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지원할 수 있는 ‘지원하는 아버지’로써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아버지를 바람직한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아버지들은 ‘친구 같은 아버지이자 훈육적인 아버지’를 추구하고 있었다. 먼저 ‘훈육적인 아버지’는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립심을 길러 주는 인생의 멘토 같

은 아버지(권영임, 2012)이며,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정신적 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아버지로서의 존재감을 찾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황정해, 이정덕, 2000)와 맥을 같이 한다.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아버지는 자녀의 윤리규범을 가르치는 의무를 맡았으며(유안진, 1994), 자녀가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훈육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겼다(이계학, 1980).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이 추구하는 ‘훈육적인 아버지’는 한국 전통사회에서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훈육자로서의 아버지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나, ‘훈육’이라는 의미와 해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의 아버지들이 제시한 ‘훈육적인 아버지’는 자녀에게 엄격하고, 애정표현이 없으며, 다가서기 어렵지만 한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아버지의 의미로 전달되는 선행연구(권영임, 2012; 김혜선, 2005; 조형숙 외, 2008)와는 다른 차원에서 해석되고 이해되어야 한다. 자녀의 양육과 관련하여 전통사회와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훈육’이라는 개념은 자녀에 대한 통제와 요구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자녀가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갖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복종을 강요하며(권영임, 2012; Baumrind, 1971), 스킨십도 대화도 하지 않는 엄하고 무서운 아버지(권영임, 2012), 즉 폭력을 많이 행사하여 자녀와의 안정된 애착형성에 어려움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시한폭탄형 아버지(Poulter, 2006)에 강하게 밀착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아버지들이 제시한 ‘훈육적인 아버지’는 자녀의 눈높이에 맞추어 자녀에게 자립심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주고, 자녀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조언하고 안내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며, 또한 자녀를 일관성 있게 대하는 리더십 있는 아버지, 즉 멘토같은 아버지를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이 자상하고 권위를 갖춘 아버지와 친구 같지만 권위를 갖춘 아버지를 바람직한 아버지 상으로 인식한다는 연구(권영임, 2012)와는 다소 일치한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훈육에서 ‘권위’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은 차이를 보인다. 아버지들은 자상하고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면서도 한국사회 전통적인 권위를 갖춘 아버지의 면모도 지키려한다는 연구(권영임, 2012)와는 달리, 본 연구의 아버지들은 친구 같은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친구처럼 긍정적이고 다정다감하면서도 친구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바르게 인도하는 동료적 입장에서의 훈육을 의미하였으며, 친구 같은 아버지를 원하면서 아버지나 성인으로써의 전통적인 권위를 내세우고자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훈육’의 개념이 재해석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훈육’의 개념은 ‘엄격함’, 또는 ‘강압적’ 개념과 동일시되지 않으며, 오히려 ‘부드럽고, 다정다감하며,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아이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가치와 옳고 그름에 대해 조언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이자 동료가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방법적인 면에서는 절대 강압적이지도, 권위적이지도, 폭력적이지도 않는 민주적인 아버지이며, 내용적인 면에서는 기본생활을 가르치는 아버지가 곧 훈육적인 아버지의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 양육에서 ‘민주적인 아버지’와 ‘훈육적인 아버지’를 대립시키는 이미지로 강하게 전달하였다면, 본 연구에서 ‘훈육적인 아버지’는 ‘친구 같은 아버지’

와 병치된다. 즉 아버지가 자녀를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요구할 때 ‘충고자’가 되며,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려할 때 공평한 ‘경청자’가 된다(유영주, 1976). 아버지들은 ‘훈육적인 아버지’와 ‘친구 같은 아버지’ 상이 평형을 이루지 못한다고 느낄 때, 자녀가 어릴 적 배워야 할 기본적인 것을 놓치게 하는 방임적이고 무책임한 아버지라고 인식하였다. 이는 바람직한 아버지는 훈육적인 아버지이자 동시에 친구 같은 아버지가 적절히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아버지들은 ‘모범적인 아버지이자 존경 받는 아버지’를 추구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의 ‘모범적인 아버지’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자 한다는 연구(조형숙, 2008; 황정해, 백경임, 2004)와 맥을 같이 하나, 근면함과 권위를 갖춘 가정의 리더로서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아버지를 추구하며, 자녀를 통제하고 복종하게 하는 의미의 권위가 아니라, 자녀에게 모범적인 본보기가 되어 신뢰감을 주는 권위 있는 아버지상을 추구한다는 연구(조형숙, 2008)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아버지들은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 인간으로서 본보기가 되고자 하였으며, 한 가정의 리더인 아버지로서의 권위보다는 한 인간으로서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기를 열망하였다. 이를 위해서 아버지들은 생활 속에서 개인으로서는 성실하고, 정직하며, 자신을 성찰하고, 참을성 있으며 근검절약하고, 항상 배우기를 즐기는 아버지, 가장으로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아이들과 약속을 잘 지키는 아버지,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타인을 존중하고, 친절하며, 인정이 많고,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아버지로서의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아버지들은 ‘모범적인 아버지’가 반드시 ‘존경받는 아버지’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는 없으나, 필요조건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현대 사회의 아버지들이 자신의 아버지 세대가 누리던 권위를 누리지 못하게 된 데에 대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는 연구결과(공진수, 2006; 조형숙 외, 2008)와는 달리, 자녀에게 권위보다는 존경 받는 아버지로서의 자존감과 위상을 갖추고자 하였다. 아버지들은 자녀로부터 모범적인 아버지만으로 지각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모범적인 아버지이자 동시에 자녀로부터 존경받는 아버지가 바람직한 아버지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들이 추구하는 아버지 상을 연구한 선행연구(권영임, 2012; 조형숙 외, 2008)에는 나타나지 않는 ‘존경 받는 아버지 상’이 아버지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며, 아버지들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아버지 상의 변화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또한 모범적인 아버지와 존경 받는 아버지는 상호 공존의 개념으로 쌍을 이루었을 때, 현대사회의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아버지 상으로 존립될 수 있음을 함축한다.

넷째, 아버지들은 ‘능력 있는 아버지이자 가정적인 아버지’를 추구하고 있었다. 능력 있는 아버지는 자녀나 가족에게 ‘경제적인 부를 이룬 아버지’가 되어 풍요로운 경제적 능력을 갖추어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해줄 수 있는 경제적으로 유능한 아버지를 제시한 선행연구(권영

입, 2012; 조형숙 외, 2008; 황정해, 백경임, 2004)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 능력 있는 아버지는 재정적 유능성을 의미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유능성 있는 아버지를 의미한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아버지, 공무원인 아버지, 그리고 회사원인 아버지, 농업에 종사하는 아버지들 모두에게 '능력'이란 단어는 '부'와 대치되는 의미가 아닌 '사회적 인정'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에게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유능성을 가진 아버지'의 의미는 '능력 있는 아버지'라기 보다는 자녀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풍부하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하는 아버지'의 의미로 해석된다는 점이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이는 '능력'이란 단어가 '사회적 유능성'의 의미를 상징하며, 곧 '가정적'이란 의미와 대립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아버지들은 한 남성으로써 개인적으로 사회로부터 능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강한 성취욕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아버지들도 사회적으로 성공여부와 그에 따른 사회적 위치가 자신에 대한 인정과 대우의 질을 좌우한다는 사실과 그것이 자녀의 미래 삶에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연구(전연우, 조희숙, 2013), 그리고 아버지는 사회 계층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를 위한 역할 정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인식한다는 연구(오미경, 1990)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자녀가 매우 어리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자녀를 위해서라도 사회적으로 더 높고 안정된 위치에 오르기를 원하고 있으나(전연우, 조희숙, 2013), 동시에 가족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가정적으로 인정받는 유능한 아버지가 되고자 하였다. 아버지들은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서로 교감을 나눔으로써 가족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 아버지들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아버지 상은 사회와 가정에서의 능력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이 능력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능력 있는 아버지이자 가정적인 아버지'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면,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이 추구하는 아버지 상은 한 개인으로 볼 때, 하나의 절대적인 방향으로 특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 기대와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다는 연구(김혜선, 2005)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는 지금까지 아버지들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아버지 상은 각각의 요소들이 어떻게 위계적 또는 유기적으로 작동하는지 그 구조화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심층면담과 개방형 설문자료의 분석을 통해 발견한 새로운 사실은 8개의 구성요소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함과 동시에 상호 구조적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지지하는 아버지이자 지원하는 아버지, 친구 같은 아버지이자 훈육적인 아버지, 모범적인 아버지이자 존경 받는 아버지, 능력 있는 아버지이자 가정적인 아버지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추구하는 아버지 상의 네 가지 측면을 보여준다. 각 쌍의 앞에 있는 아버지 상(지지-친구-모범-능력)은 아버지로서 필수적인 요인이기는 하지만 충분하지 않으며(필요조건), 뒤에 있는 아버지 상(지원-훈육-존경-가정)까지 갖추었을 때 비로소 충분하게 된다. 전자와 후자는 필요와 충분, 내지는 현실과 이상이라는 비대칭적

상보성의 관계에 있다. 전자는 현실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이상적으로 보면 충분한 조건은 되지 못하는 아버지 상이며, 후자는 이상적으로 그것이 있어야 바람직한 아버지 상이 완성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하기는 어려운 조건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아버지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상에 대해 표층적 현상을 제시하고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다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표층적 현상을 이면으로 끌어냄으로써 심층적 구조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즉 표면적으로는 8개의 구성요소가 각각 아버지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상으로서 별립하는 듯 보이나, 심층적으로는 2개의 요소가 상보적으로 짝을 이루어 작동하였을 때에만 자녀가 기대하고 아버지가 추구하는 아버지 상으로써의 의미를 갖는다. 결론적으로 현대사회와 가정이 요구하고 동시에 아버지 자신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아버지 상은 ‘슈퍼맨’이라는 핵심적인 상징으로 집약된다.

본 연구의 논의를 통해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배경변인에 따른 아버지 상의 차이에 주목하기 보다는, 아버지 상의 총체적 구조를 추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8인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한 결과, 유아기 자녀를 아버지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아버지 상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소 편향되는 세부적인 차이가 발견되었다. 예로, 여아만을 자녀로 둔 아버지는 능력 있는 아버지이자 가정적인 아버지를, 남아만을 자녀로 둔 아버지는 훈육적인 아버지이자 친구 같은 아버지를, 그리고 여아와 남아를 자녀로 둔 아버지는 모범적인 아버지이자 존경받는 아버지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았다. 따라서 자녀의 배경변인에 따라 아버지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아버지 상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추구하는 아버지 상에 대해 주목하였으나, 아버지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아버지 상이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어떠한 변화상을 보이는지, 또는 유아기와 아동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 간에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해 보다 깊이 있고, 단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종단적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의미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아버지 상에 대해 분석하였으나, 이러한 아버지 상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초점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혀진 아버지 상은 어릴 적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무의식적으로 내면화되어 반영된 것인지(김영희, 최명선, 2001; Pleck, 1997), 또는 이와 관련하여 격세(隔世)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조부모에 대한 연구와 연계된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넷째, 바람직한 아버지 상은 그 시대와 문화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상호 영향력을 행사한다. 대중 문화적 텍스트, 그 중에서도 텔레비전 드라마는 일반적으로 반영적 대중성을 강하게 띤다는 점에서, 대중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이미지와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좋은 텍스트가 된다(김영철, 2014). 따라서 영유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이미지가 반영된 다

양한 대중 문화적 텍스트들을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그 시대와 문화적 맥락을 통해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 방법 상의 한계로 인하여, 아버지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아버지 상은 파악할 수 있었으나, 아버지들의 실제 행위로부터 추론된 바람직한 아버지 상의 실천 정도는 파악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자녀양육에 적극적인 아버지들의 모습은 예전에 비해 친숙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아버지 됨과 실제 아버지 행동의 불일치가 존재하는지(김혜영 외, 2008)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따라서 차후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양육참여를 촉진하고 아버지로서의 자긍심 형성 및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 밝힌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아버지 상의 교육적 의미가 천착될 필요가 있다. ‘슈퍼맨’이라는 바람직한 아버지 상에는 이 시대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열망이 투영되어 있다. 그 열망은 얼마나 교육적인 것일까? 아버지들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아버지 상은 가정교육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아버지가 가정교육의 한 주체라는 점에 의미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밝혀진 아버지 상은 사회화의 대행자에 머무는 듯 보인다. 따라서 아버지의 교육적 소임을 규명하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란혜(2000). 아버지 역할수행의 결정요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6), 15-28.
- 공진수(2006). 아버지 됨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 신학대학교.
- 권영임(2012). 아버지의 아동기 경험과 자녀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6(2), 125-142.
- 권오진(2011). **아빠가 달라졌어요**. 서울: for book.
- 권재희(2006). 그림책 관련활동에 따른 유아의 아버지 상 변화.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김낙홍(2010). 바람직한 아버지의 역할과 역할수행의 어려움, 사회적 지원에 대한 고찰. **미래유아교육학회**, 18(2), 79-98.
- 김영두(2011). 초보 아버지들의 양육특성과 아버지 됨의 변화과정. 석사학위논문, 배재대학교.
- 김영숙(2008).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 김영철(2014). 텔레비전 드라마 <돈의 화신>에 나타난 ‘아버지의 이미지’의 극복과 그 교육적 시사점. **아시아교육연구**, 15(3), 71-96.
- 김영희, 최명선(2001). 의미분석법에 의한 아동 및 청소년의 부모이미지 연구. **한국놀이치료연구**, 4(2), 3-14.
- 김인홍(1997). 아버지상의 역사적 변천 연구. **교육사회학 연구**, 7(1), 73-84.
- 김진(2005).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아동의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김혜선(2005). 첫 아버지 됨의 체험. **아동학회지**, 26(6), 73-87.
- 김혜영, 황정미, 선보영, 김동기(2008). **남성의 부성경험과 갈등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나일수(1994). 자녀교육에서 아버지의 엄격함. **백암 이창호교수 회갑기념논문집**, 463-486.
- 서명희(2006). 초등 국어과 교과서 제재에 드러난 아버지상의 변천. **인문학연구**, 7, 127-153.
- 서혜영(1998). 남성의 일-아버지 역할 갈등과 부모 역할 만족도 및 부모로서의 유능감.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설경옥, 문혁준(2006).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및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4(7), 1-9.
- 송요현, 현은강(2008). 아동 및 아버지가 지각한 아버지 역할수행이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3), 131-147.
- 양진희(2005). 가족과 또래관계에 대한 유아의 이해.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오현복(2010).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주관적 인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

울대학교.

- 유안진(1994).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아동. **한국아동학회 94년 추계학술대회자료집**, 3-24.
- 윤현경(2010). 아버지의 정서적 공감과 양육참여가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
- 이계학(1980). **부성의 교육적 기능에 관한 고찰**. 서울: 동덕여자대학교.
- 이숙현(1995). **아버지의 일과 가족생활**. 서울: 한국가족학연구회.
- 이영미, 민하영(2006). 아버지의 유아 양육참여에 대한 가족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유아기질의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4), 93-101.
- 이영환, 이진숙, 조복희(1999).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생산적 아버지노릇: 척도 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12), 79-89.
- 이정순, 조희숙(2005). 가족역할 및 직업역할이 유아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9(2), 43-58.
- 전경우(2013). **남자의 진심: 전경우 에세이**. 서울: 공감의 기쁨.
- 전연우, 조희숙(2013).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아상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3), 343-363.
- 정순화, 김시혜(1996). 동시를 통해 본 아동이 묘사한 아버지의 모습. **한국아동학회지**, 17(2), 67-88.
- 정한나(2012). 아버지의 근무환경 및 역할 신념이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조형숙, 김지혜, 김태인(2008).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추구하는 아버지상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2(1), 239-264.
- 한경혜(1995). 남성의 직업 역할과 부모기 전이로 인한 긴장감/보상감. **가족학논집**, 7, 155-183.
- 홍길희, 황정해(2008). 아버지 됨(fathering) 향상을 위한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2(2), 237-260.
- 황정해, 백경임(2004). 예비 아버지의 부성경험에 관한 일 연구. **한국아동학회지**, 25(5), 59-71.
- 황정해, 이정덕(2000). 남성의 아버지됨 경험에 관한 연구 -취학전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2), 43-65.
-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s*, 41(1), 12-37.
- Cabrera, N. J., Tamis-LeMonda, C. S., Bradley, R. H., Hofferth, S., & Lamb, M. E. (2000). Fatherhood in the *twenty-first century*. *Child Development*, 71(1), 127-136.
- Canfield, K. R. (1995). Effective fathering practice and fathering satisfaction related to a father's life course. Kansas State University Dissertation.

- Cowan, C. P., & Cowan, P. A. (2000). Associations between father-daughter relationship quality and the academic engagement of African American adolescent girls: Self-esteem as a mediator? *Journal of Black Psychology*, 35(4), 495-516.
- Duxbury, L., & Higgins, C. (1991). Gender differences in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6, 60-74.
- EBS <파더쇼크> 제작팀(2013). 파더쇼크: ‘잊혀진 양육자’에서 ‘친구 같은 아빠’까지, 부성탐구 특별기획. 서울: 쌤앤파커스.
- Gadsden, V., & Ray, A. (2002). Engaging fathers: Issues and considerations for early childhood educators. *YC-Young Children*, 57(6), 32-43.
- Greenberger, E., & O’Neil, R. (1993). Spouse, parent, worker: Role commitments and role-related experiences in the construction of adults’ well-being and attitudes toward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3), 621-635.
- Henry, A. (1997). Images of the ‘father’ in psychology and religion. In M. Lamb(Ed.)(1997).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pp.19-32). New York: John Wiley & Sons.
- Lamb, M. E. (2000). The history of research on father involvement. *Marriage & Family Review*, 29(2), 23-42.
- Marks, L., & Palkovitz, R. (2004). American fatherhood types: The good, the bad, and the uninterested. *Fathering*, 2(2), 113-129.
- Morman, M., & Floyd, K. (2006). Good fathering: father and son perceptions of what it means to be a good father. *Fathering*, 4(2), 113-136.
- Pleck, J. H. (1997). Paternal involvement: levels, sources, and consequences. In M. Lamb(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pp.66-103). New York: John Wiley & Sons.
- Poulter, S. (2006). *The father factor: How your father’s legacy impacts your career*. New York: Prometheus Books.
- Ringsmose, C. (2012). Social welfare and minding the achievement gap: A view from Denmark. *Childhood Education*, 88(3), 185-188.
- Rogers, S. J., & White, L. K. (1998). Satisfaction with parenting: The role of marital happiness, family structure, and parents’ gend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293-308.
- Rold, G. H., & Canfield, K. R. (1994). Measuring the dimensions of effective fathering.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4, 212-217.
- Ross, C. E., & Huber, J. (1985). Hardship and depress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6(4), 312-327.
- Snarey, J. (1993). *How father care for the next generation: A four-decade study*. Harvard University

Press.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California: Sage.

Zoja, L. (2001). *The father: historical, psychological and cultural perspectives*. 이은정 역(2009). **아버지란 무엇인가**. 서울: 르네상스.

* 논문접수 2014년 11월 6일 / 1차 심사 2014년 12월 1일 / 게재승인 2014년 12월 18일

* 김영철: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kyc@chungbuk.ac.kr

* 양진희: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교통대학교 국제사회대학 유아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jinheey@ut.ac.kr

Abstract

‘A Superman’: A Study on Desirable Images of Father pursued by the Fathers of Young Children

Kim, Young-chul*

Yang, Jin-He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desirable images of father pursued by the fathers of young children. The participants for this study were 263 fathers for young children attending at daycare center and kindergarten in the areas of S, Gy, and Gw. The 8 fathers of 263 fathers were attended in individual in-depth and semi-structured interviews. To conduct this study, a questionnaire asking the desirable images of father pursued by the father of young children and the individual in-depth and semi-structured interviews was collected and analyz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desirable images of father pursued by the father of young children were categorized into 8 images(father as a emotional supporter, father as a financial supporter, a father in charge of moral training, father as a friend, father as a role model, a father is place on high pedestals, father as a person of great capacity, and father as a family man), this 8 images were categorized into 4 images.

Those were as follows: first, father as a financial supporter as well as father as a emotional supporter, second, father in charge of moral training as well as a father as a friend, third, father as place on high pedestals as well as father as a role model, and fourth, father as a family man as well as father as a person of great capacity. The result suggests that the ideal images and the realistic images of father pursued by the father of young children forms the relationship of separation and integration. Fathers of young children in modern society were experiencing the conflicts between the desirable images of father pursued by themselves and the realistic images as fathers in real life. They also were experiencing some feeling of separation and integration between the ideal images of father pursued by themselves and the realistic images as fathers in real life.

Key words: Childhood, Young Children, Father, Image of Father

* First author, Professo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